

# 남원 1인 가구에 범죄 예방 장비

### CCTV 등 안심장비 3종 세트 설치 '주거 안전방문 지킴이 사업' 추진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예산 소진까지 참여자 모집

남원시가 혼자 살아도 안심되는 주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혼자 살아도 안심되는 주거환경' 조성 예산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1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CCTV를 비롯해 안심 장비 3종 세트를 설치하는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되는 장비 중 가정용 CCTV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모바일 앱의 긴급 호출(SOS)을 눌러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 카메라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해 줄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에게 위치 공유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안심 장비 3종 세트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으로 구성돼 있다.

3종 세트 전부 또는 일부 장비를 신청자 주거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가 1인 가구 현관문에 이중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18~65세 미만) 또는 한부모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 추세

여서 다각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혼자 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남원시, 보관·방치된 슬레이트도 처리

### 건축물 철거지원사업 확대...다음달 2일까지 신청

남원시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사업을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까지 확대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자연재해나 건축물 붕괴 또는 오래전부터 방치돼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폐슬레이트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중에는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2차 환경오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별도로 집행 잔액을 활용해 보관·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비도 지원키로 했다.

희망자는 오는 8월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원인자 확인이 어려운 폐슬레이트로 인해 주민 거주 지역, 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과 석면 노출의 우려가 큰 곳을 우선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자체적 처리가 어려워 불법 처리 및 슬레이트 방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 위협을 방지하고 마을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 상수도 요금 동결·착한가격업소 지원 등...특교세 1억 확보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재정 성과보수 1억원의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 공공요금 동결 여부,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등 7개 분야, 13개 지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를 실시했다.

고창군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안정

화를 위해 올 상반기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 결정했다. 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물가 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행정뿐만 아니라 고창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한 성과이기에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 속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민생안정과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 무주택 청년에 1년간 월세 지원

### 최대 240만원...다음달 21일까지 신청자 접수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월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

(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 재산

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 고령층 우울증 예방 '찾아가는 마음쉼터' 호평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마음쉼터'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그동안 '마음안심서비스'를 타고 우울증

고위험군이 3명 이상인 마을 5곳을 찾아가다. 앞서 센터는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 검사를 했다.

찾아가는 마음쉼터에서는 안마 봉사과 서금요

법, 손톱 꾸미기, 발 주무르기, 원예 요법, 노래·요가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고창군 가족센터와 협업체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 치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 먹거리·예술·관광 분야 활동 지원



정읍의 '맛·멋·향'을 대표할 시범사업을 펼칠 액션그룹 17개 팀이 최근 정읍시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협약식을 맺고 활동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정읍시 제공〉

## 액션그룹 17개 팀 시범사업 협약

정읍시는 최근 2청사 대강당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하나인 '기초액션그룹 아카데미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협약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은 정읍 특색을 반영한 맛(먹거리), 멋(문화·예술), 향(관광·체험)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액션그룹은 구

성원과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1차 시범사업 지원비 7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정읍 특색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펼치며 활동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정읍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와 고도화 성장 지원을 돕는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사업체와 공동체를 발굴하고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